



시도 지부장 연회석회의 개최 2월28일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예산규모 1억7천9백여만원 마련

- 인력수급 적정화의 계속추진
- 보험수가 현실화 추진
- 홍보활동 강화
- 치과질환 실태조사
- 86년 제12차 아태회의 개최준비
- 의료보험조합 설립강구 등 중점사업계획안 마련코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大韓齒科醫師協會는 지난28일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임원 및 전국시 노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인력수급적정화의 계속추진, 보험수가현실화 추진, 홍보활동강화, 치과질환실태조사, 아태회의 개최준비, 의료보험조합설립강구 등의 새해 사업계획안을 마련,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池憲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는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병소적인 비판으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말하고 전국지부장들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池會長은 협회사무국에서 임원들이 매일 교대로 근무 하면서 회무의 진행사항등을 정확하게 파악,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고 그동안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이같은 중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새해예산 1億7천9백여만원을 마련, 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회원의 권익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외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해 중점사업 가운데 치과의료인력수급정화사업은 지난해에 연구된 인력수급계획안을 갖고 전국치과대학 및 기타 치과인력양성기관의 실태를 파악, 문제점을 연구분석하여 관계당국에 건의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 회원이 의료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으며 오는 86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할 제12차 아세아태평양 치과연맹 총회를 국제적인 회의로 만전을 기하기위한 작업으로 회의준비를 위한 사전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자료확보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 동 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